

<검찰관>과 <죄와 벌>에 나타난 부조리 비교

2019115013 추 원 경

1. 서론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 삶 속에는 고통과 기쁨, 욕망과 절제, 불신과 믿음, 증오와 사랑, 소유와 상실, 의미와 무의미, 정의와 부정의의 상반된 상태가 존재하며 함께 공존한다. 이것들이 서로 내적, 외적으로 충돌될 때 우리는 삶에서 혼란을 느끼고 이는 나아가 삶에 대한 성찰과 표현으로 이어진다.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부조리’의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부조리는 이치나 도리에 맞지 않은 일을 의미하며 부정행위의 완곡한 표현이다. 그러나 철학이나 문학에서는 의미를 전혀 찾을 수 없는 근본적인 모순의 상태를 의미한다. 철학적 관점에서 부조리의 개념을 처음 소개한 학자는 카뮈인데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모호한 삶의 상황들, 삶의 조건들 전체를 부조리라는 용어로 표현한다.¹⁾ 삶 속에서 경험하는 부조리는 원인과 결과가 명확한 특정 현상이기보다 인식 여부에 상관없이, 삶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 끊임없이 변화하는 채 지속되는 삶 속에서 상태의 상충은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삶의 어떤 영역에서 나타나는 부조리인지에 따라 내적으로, 외적으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문학작품에서 작가는 이러한 부조리들을 끄집어내 허구의 상상력을 가미하고 이야기화하는 역할을 한다. 문학의 부조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 반영 의무에 대해 절대적인 대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모든 문학작품은 작가가 사는 사회의 상(相)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작가 또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구성원이므로 그 속의 작가는 자신의 글에 간접적으로 사회상을 반영시키는 셈이다. 다시 말해, 작가가 작품에서 불가피하게 묘사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상황에는 사회에 대한 그의 생각과 함께 부조리에 대한 고찰도 포함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니콜라이 고골의 <검찰관>과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서는 각각 삶의 부조리에 대한 주제 의식이 드러난다. 고골과 도스토옙스키는 모두 19세기에 활동한 러시아 제국의 사실주의 작가로 객관적 태도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작품에 녹여냈다. 공산혁명 이전, 19세기 러시아는 전근대적 요소의 잔해와 극심한 빈부격차로 문제를 앓고 있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 안에서 고골과 도스토옙스키가 러시아 사실주의라는 같은 문학적 사조 안에서 삶의 부조리에 대해 어떤 성찰을 했고 이에 대한 갈등과 그 해소를 어떻게 표

1) 이서규. (2013). 카뮈의 부조리철학에 대한 고찰. 철학논집, 35(0), 139-178. Seu Kyou Lee. (2013). Eine Untersuchung uber die Absurditat bei Camus. Sogang Journal of Philosophy, 35(0), 139-178.

현했는지 비교, 분석할 것이다.

2. 본론

2.1. 작품 속 부조리의 형상

<검찰관> 내부의 등장인물들은 각자의 부조리를 안고 있다. 일반적으로 부조리를 부정행위 즉, 사회적, 도덕적으로 금기시되는 행위로 일컬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모호한 상황 혹은 조건, 그에게서 오는 상실과 혼란’으로 부조리를 정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부패한 관료주의의 대표적 표상으로 등장한 ‘시장’의 입장에서조차도 부조리는 존재한다. 작품 속 시장은 자신이 부당한 방법으로 소유해온 것과 상실 혹은 상실할 위기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고 극적인 행동(가령, ‘온몸을 벌벌 떨면서’²⁾ 이야기 함, 사실을 알고 나서 ‘울화통을 터뜨리며 바닥을 발로 차’³⁾)으로 그것이 나타난다. ‘시장’을 포함한 홀레스타코프를 검찰관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등장인물은 작품 내부에서 부조리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작품의 마지막 침묵의 장에서도 나타난다. 홀레스타코프와 오시프를 제외한 모든 등장인물이 돌처럼 굳어서 꿈쩍하지 않는 이 연출 지시문은 진실을 알게 된 충격과 그로 인한 부조리의 감정을 단적으로 표현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연출은 작가의 지시대로 ‘거의 1분 30초 동안’ 지속되는데 이러한 무대에서의 정지 상태로 각 등장인물의 자세와 표정을 날날이 드러내고 이는 부조리가 극도로 강조된다.

작가와 독자가 사는 작품 외부에서 보았을 때, 고골의 <검찰관>을 하나로 관통하는 부조리는 부패한 관료주의다. 19세기 러시아는 부국강병을 이루고 있는 서양 세력과 비교했을 때,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이었으며 내부적으로도 부패한 시기였다. 부조리극⁴⁾의 형식을 띠는 <검찰관>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을 잘 담아냈다. 작품 속 마을의 시장, 판사, 자선병원장, 지주 등 사회적으로 상류층에 속하는 계급의 부정부패는 작품 속 대화에서 끊임없이 나타난다. 홀레스타코프에게 이러한 부정행위를 고발한 상인계층의 부조리도 인상적이었다. 선악 구도로 인물을 나눴을 때, 자칫하면 ‘악자’의 위치에 있게 되어 보이는 상인들 또한 결국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청탁을 함으로써 부조리적 상황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죄와 벌> 작품 내부에서 또한 각각의 등장인물은 그들만의 부조리를 갖는다. 대표적으로 라스콜니코프는 주인공으로서 가장 많은 부조리를 경험한다. 그가 겪는 혼란스러운 상황이나 심리상태는 계속해서 비정상적인 감정이나 표정, 행동으

2) 니콜라이 고골, 이기주 옮김, 고골 단편집: 검찰관, (서울: 펍클래식 코리아), 222

3) 니콜라이 고골, 이기주 옮김, 고골 단편집: 검찰관, (서울: 펍클래식 코리아), 328

4) 부조리극은 마틴 에슬린(M. Esslin)이 언급하면서 쓰이게 된 용어. 그에 따르면 부조리극이란 “통합된 원칙을 잃고 분열된 세계 속에서 느끼는 인간 존재의 우주적 상실감을 표현하고자 하는 연극”

로 나타난다. 가령, 어머니의 편지를 모두 읽고 나서 ‘얼굴은 창백’해지고 ‘경련으로 찌그러’졌지만 ‘입술에는 심술궂은 미소가 슬쩍 비쳤다’던가, 자신이 ‘미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⁵⁾며 소름이 끼쳤다는 표현에서 나타난다. 살인을 저지른 후부터는 작품에서 ‘열병’으로 표현되는 신체적, 심리적 질병 상태가 지속되기도 한다.

<검찰관>과 <죄와 벌>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부조리의 형상 면에서의 차이는 <검찰관>에서는 이야기를 하나로 관통하는 ‘관리들의 부정부패’라는 부조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반면, <죄와 벌>에서는 하나의 큰 부조리에 대한 주제 의식이 있다기보다, 라스콜니코프의 살인 계획과 실천, 그리고 회개의 전면적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들과 그 주변인들의 갈등과 이해관계가 곧 부조리며 주제 자체라고 생각한다. 이는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서 인물들은 살아 있는 현실의 인물이기보다 ‘사상의 체화’⁶⁾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하나의 토론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 <죄와 벌>의 서사 전체는 사상이 체화된 인물들의 토론장이라고 여겨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혼란이며 부조리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죄와 벌>에서는 중심 사건인 라스콜니코프의 살인을 부도덕한 행위로서 무조건 비판하기보다 초인사상⁷⁾의 결과물로서 바라본다. (물론, 작품에서 라스콜니코프는 초인이 아니었고 그 결과물은 초인사상의 실패였음)

2.2. 작품 속 부조리의 폭로와 해결

두 작품의 가장 큰 공통점은 부조리의 폭로로써 스캔들(대소동)이라는 수단을 이용했다는 것이다. 먼저 <검찰관>에서는 우체국장이 흘레스타코프의 편지를 가로채며 그는 검찰관도 무엇도 아닌 그저 나그네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이 폭로된다. 검찰관에게 그들의 부패가 발각될까 봐 작품 내내 이어졌던 우스꽝스러운 행동들의 긴장이 풀어지며 마침내 진실이 드러난다. 독자는 작품 초반부터 이어졌왔던 해학의 절정을 경험하며 일종의 카타르시스⁸⁾를 느낀다. 이어지는 침묵의 장에서 독자는 또 한 번의 절정을 경험한다. 모든 인물들이 모여 있는 가운데, 헌병이 진짜 검찰관의 등장을 알리고 모두 돌처럼 굳어 꼼짝도 하지 않는다. ‘군수는 두 팔을 벌리고 중앙에서 고개를 뒤로 젖힌 채 기둥처럼 서 있’고 루카 루키치는 ‘넋을 잃은 채 기이한 표정을 짓’고 있으며 부인들과 손님들은 ‘군수 일가를 향해 몹시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다⁹⁾. 오해의 과정을 내내 지켜봐 온 독자는 그들이 느꼈을 황당함

5)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이철 옮김, 죄와 벌 (서울: 신원문화사), 77, 148

6) 정보라 교수님, 수업내용: 대화성과 다성성, 2020.04.21

7) 니체의 초인사상. 모든 것에 있어서 월등히 수준 높은 초인의 존재가 사회적, 도덕적 테두리에서 벗어나 세상을 구원할 것이라는 사상. 라스콜니코프와 작가 본인에게 영향을 미쳤다고 알려짐.

8) 네이버 사전, 카타르시스: 비극(悲劇) 속의 연민과 공포(恐怖)를 통해서 마음이 정화되고 쾌감을 느끼는 일. 아리스토텔레스가 《시학(詩學)》에서 비극이 관객에 미치는 중요 작용의 하나로 든 것이다.

9) 니콜라이 고골, 이기주 옮김, 고골 단편집: 검찰관, (서울: 펍클클래식 코리아), 332

에 공감하는 동시에 ‘손님들’같이 그들에게 조소를 보낸다. 이렇게 한바탕의 소동 즉, 스캔들이 일어남으로써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관객들은 부조리한 관리들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해학을 느끼며 작품 속 부조리의 폭로와 해소를 동시에 느낀다.

<죄와 벌>에서는 ‘루진’은 여성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현재 독자 입장에서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은 금기시되며 이야말로 부조리라고 생각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도스토옙스키는 작품 내에서 라스콜니코프 등의 등장 인물을 사상의 체화물로 보고 그들이 하나의 소설이라는 토론장에서 활동하게 내버려두는 형태의 글을 썼다. 하지만 유일하게 루진은 사상의 체화물이기보다 여성을 꺾박하는 폭력적인 남성의 상징성이다. 이와 비슷한 인물로는 스비드리가일로프가 있지만 루진과 달리 작품 내에서 주인공의 분신임이 암시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면서 결국 자살하는 인물이다. 당시 자살은 이교적 행위¹⁰⁾로 기독교적 성격을 띠었던 작가의 작품에서는 더더욱 금기시되는 행위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살의 과정에 있어서, 그는 내부적으로는 공포에 시달리지만, 외부적으로는 자살을 일종의 퍼포먼스로써 보여주며 끝내는 연극적 자아를 지닌 인물로 묘사되었고 개인적으로 작가가 그를 부정적 인물이기보다 비극적 인물로 묘사했다고 다가왔다. 이와 달리 루진은 폭력적인 남성의 상징이며 순수하게 부정적 인물로 묘사된다. 모든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그의 속임수와 비열함이 한 번에 드러나는 소동, 즉 스캔들이 일어난다. 독자들에게 작품에서의 거의 유일한 악역 인물의 몰락은 <검찰관>에서와 마찬가지로 일종의 갈증 해소로 나타난다.

그렇다면 라스콜니코프의 부조리적 심리는 어떻게 폭로되는가? 라스콜니코프는 자신의 살인죄에 대해 소냐에게 궁극적으로 자백하지만, 이것은 카타르시스적으로 다가오기보다 작품에서 묘사되는 ‘열병’의 일시적 해소를 위한 임시방편이었다고 생각된다. 소냐에게 했던 자백과 작품의 에필로그에 비로소 나오는 진정한 구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할 뿐 아니라, 자백하고 나서도 그는 여전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독자는 라스콜니코프가 완전한 기독교적 구원을 얻은 것을 에필로그에서 보고 나서야 비로소 부조리에 대한 해소를 느낀다. ‘의식 속에서 과거와의 다른 새로운 무엇인가가 형성되어야 함’을 느끼고 ‘한 사람이 점차 새로운 인간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의 라스콜니코프의 사고¹¹⁾는 독자에게 위에서 언급한 루진 스캔들과는 또 다른 차원의 순수한 희망과 갈등의 해소를 안겨줬다. 잘못된 초인 사상의 체화인 라스콜니코프의 오만함과 비열했던 과오가 일순간에 구원에 대한 희망과 부조리의 해결로 변모된다. 이때 도스토옙스키가 왜 기독교적 사실주의

10) 서광진. (2016). 두 자살: 라디체프와 카람진의 “리자”. 러시아연구, 26(1), 57-84.

Kwang Jin Seo. (2016). Two Suicides: A. N. Radishchev and “Liza” from Karamzin. RUSSIAN STUDIES, 26(1), 57-84.

11)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이철 옮김, 죄와 벌 (서울: 신원문화사), 504, 505

사조를 따른다고 하는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라스콜니코프가 구원의 순간 함께였던 물건은 성경, 즉 ‘종교적 회개와 구원’의 상징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인간이 개인적 경험 즉, 고통을 통해 신을 찾아 구원받아야 하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것이고 겪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¹²⁾

3. 결론

지금까지 니콜라이 고골과 표도르 도스토옙스키가 각각 그들의 작품 <검찰관>과 <죄와 벌>에서 어떠한 부조리를 표현했고 표출했는지 비교하고 분석해 보았다. 두 작가 모두 사실주의라는 사조를 따르며 러시아인의 현실 모습을 담아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고골은 풍자적으로 부조리를 폭로했지만, 도스토옙스키는 종교로부터의 구원을 통해 부조리를 해소했다. 폭로와 해소의 차이에 있어서 애초에 작가 각각이 부조리를 바라본 시선은 상이하다. 대표적으로 고골은 <검찰관>을 통해 부패한 관료주의를 부조리로 지적하며 부조리의 상태는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어떤 방식으로든 폭로되어야 하며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한다고 간주된다. 반면 도스토옙스키는 라스콜니코프의 고뇌와 과오를 부조리로 간주하며 결국에는 구원을 받기 위해, 즉 부조리를 해소하기 위해 이 부조리가 ‘필연적’이었다 라는 모순적 결론을 전한다고 생각한다.

부조리는 하나의 감정이나 상태이기보다 삶 자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이 지속되는 한, 상태의 충돌은 계속될 것이고 부조리 또한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조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할망정, 변화시키고 더 나은 상태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과정의 관점에서 고골의 <검찰관>은 작품 외부적으로 부패한 사회상을 폭로하고 이는 당대나 현재의 독자들이 조금 더 나은 사회 인식이나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기여했을 것이다. 또한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은 고통과 혼란은 필연적이며 우리는 더 나은 상태, 어찌면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부조리적 감정이나 상황, 혹은 조건을 부정하기보다 받아들여야 한다는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했을 것이다.

12) 정보라 교수님, 수업내용: 도스토옙스키와 고통, 2020.04.23